

1만 일자리 창출하려면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서 사회적기업 역할 강조

종교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사회적 기업은 나눔과 공존을 실천하는 종교적 역할을 물론 지역이나 자치단체에 네트워크 구축, 인적·물적 자원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확산의 '뒷받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 결집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연계와 지역사회 인식 확산·공유를 위한 교육사업에 종교계의 역할에 주목했다.

6월 9일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는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후원으로 설립한 불교계 유통 사회적기업 연우와함께(대표 이상근)와 개신교 해인교회의 인천내일을여는집 등을 조명하고 종교계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이 소개됐다.

불교계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에는 현재 사회적 기업이 532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005개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교계 사회적기업은 4개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 중 불자가 22.8% 인데 비해 불교계의 사

회적기업에 대한 참여와 확산은 미약하다.

하지만 불교계는 사회적기업을 이루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27개 종단 산하에 약 2만여 사찰, 1072만 명의 불자 수가 있으며 1만평 이상 보유사찰을 기준으로 2억 3500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조계종 중립학교가 22개, 복지시설도 1155개에 이른다.

연우와함께는 '1사찰 1사회적기업'을 목표로 100개 사회적기업을

이웃종교에 비해 조직력이 부족한 불교계는 27개 종단을 통합하는 불교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역별, 분야별 사회적기업 가능성과 상호연계 지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홍보의 과제가 남아있다.

기독교계 사회적기업 확산 방안
기독교는 전국 교회 5만개 중 5%만 참여해도 사회적 기업 2500여 개소를 육성할 수 있다. 1개소당 3~5명을 고용하면 약 7500~1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전국적 기독교 언론이 구성돼 있고, 이를 통해 계몽과 상업적 홍보도 가능한 점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독교는 기독교계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초교파적 차원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교단에서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실태 파악, 컨설팅, 자연연계, 인증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하게 된다.

최근 기독교에서 교회성장논리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로 패러다임의 변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다. 기독교 측은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사회공헌의 시대정신과 맞물리면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최상의 자원과 환경을 갖췄다"고 말했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이 국정 아젠다로 자리잡아 제도 개선안이 실행되도록 향후 실행시스템 구축과 부처별 계획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상매주 한 차례이상 모이는 점, 헌금으로 하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 CBS, CTS, 기독교 IPTV 등 사회적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종교계 주축 불교계는 인적·물적 자원 충분해

창업으로 1만개 일자리 창출, 1조원 매출 달성, 10조원 사회적 효과 달성을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역사와 전통의 특징을 살리고, 넓은 입야 및 토지를 활용한 숲 가꾸기, 생태계 보존·재활용 및 자연학습장, 명상센터, 요양·자활센터, 숲유치원 등 힐링 프로그램, 친환경 식재료, 약초, 장류 및 발효 등을 통합 연계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컬푸드 사업 및 사찰음식 세계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과 건강한 유통 관련 사업을 특화할 계획이다.

만 2500명의 고용 효과도 얻는다. 기독교의 조직력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가장 큰 이점이다. 기독교는 스스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국단위의 총회, 지방자치 단위의 노회, 시군구 단위의 시찰회 등 오랜 세월 활성화 된 조직을 앞세워 사회적기업 육성의 잠재적 가능성을 바라봤다. 또 교회 성격 상 매주 한 차례이상 모이는 점, 헌금으로 하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 CBS, CTS, 기독교 IPTV 등 사회적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봉사활동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인덕원 노인요양원 자원봉사자 조남인 보살



“환자들에게서 오히려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인(76) 보살은 은평구에 위치한 인덕원 노인요양원에서 매주 2회씩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조 보살은 항상 손에 3~4개씩의 단주를 차고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환자와 함께한다. 그러다보니 환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처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서로간의 신뢰가 쌓인 것 같아요.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인 보살은 인덕원 이외에도 은평노인복지관, 녹번노인돌봄센터

에서도 매주 봉사활동을 펼친다. 조 보살은 은퇴 전까지 개업으로서 30년 동안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은퇴 전에도 꾸준한 의료봉사를 펼쳤지만 이제는 봉사 자체가 그의 삶의 전부였다.

“이사장인 성운 스님이 불교복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시니까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스님에게 율타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남인 보살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성운 스님의 율타리가 될 것을 당부한다. 조 보살은 어머니 때부터 성운 스님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조 보살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먼저 스님을 찾아가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 할 뿐이다. 자주 찾아오는 것조차 스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남인 보살은 봉사자들에게 '진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노인요양원의 치매환자들조차 봉사자들의 진심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봉사자들의 손만 잡아도 봉사자의 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 진심이 아니면 아예 시작도 말라고 합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고, 봉사를 하겠다는 헌신적인 자세 없이는 봉사활동을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보살은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굳게 믿는다. 환자들이 자신에게 웃어주고, 최고라고 외쳐줄 때마다 힘을 얻는다.

“봉사를 통해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을 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의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싶네요. 개업으로 지낼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조남인 보살은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인덕원과 복지관에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의약품 후원하고 있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조 보살이 지원하는 의약품조차 의심의 눈길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가 후원한 의약품만 찾는다. 의약품을 후원받은 사람들은 김치나 목 등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갖고와 고마움을 표시한다. 조 보살은 그럴 때면 정말 행복하다며 웃어 보였다.

조 보살은 불자로서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불교계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불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당부했다.

“불교도 더 발전하고, 불교계 봉사활동도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60살에 봉사활동을 시작해도 진심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15~20년은 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박기범 기자

한국종교, 이슬람교를 만나다

대화 세미나 열고 서로 간 이해 증진

한국종교와 이슬람교가 한 자리에서 서로간의 이해를 위한 대화를 풀어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한국이슬람교, 종교평화국제사업단과 함께 용산구 하이원 빌리지에서 6월 8~10일까지 친교와 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슬람 다가서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아시아 지역의 무슬림과 이웃종교학자 및 국내 이주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눴다.

9일 날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

서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서 “이슬람권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서구가 이슬람권에 좀 더 유연하게 다가가고, 동시에 무슬림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혁과 의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문명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무슬림 이마 유니타, 필리핀 천주교인 파블리토 바이비도 등이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박기범 기자

뜨거운 여름 수행 열기 이어져

성주 보리선사는 7월 29~31일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숲속 명상학교를 실시한다. (054)931-8874

해남 미황사는 6월 18~25일 7월 9~16일, 8월 11~15일, 8월 15~21일, 9월 17일~24일 참선집중수행을 2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상연 기자

실시한다.

초등학교생을 위한 한문학당도 7월 24~31일, 8월 3~10일 진행되고 한문교육, 문화체험, 발우공양, 예절, 참선 다도, 산행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061)533-3521

이상연 기자

아름다운동행, 구제역 피해 장학금 지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피해지역 사찰 및 관공서이며, 6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 737-9595

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피해지역 사찰 및 관공서이며, 6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 737-9595

박기범 기자

장보고 대사로 이어진 천 년의 인연

제3회 한중일 불교문화교류제, 기념법회 및 학술대회



'장보고와 한중일 삼국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열린 제3회 한중일 불교문화교류제가 6월 9~11일까지 조계사와 전라남도 완도 일대에서 진행됐다.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일본, 중국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됐다.

한중일 삼국의 스님과 관계자들은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갖고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기념 법회 후 한·중·일 참가자들은 조계사 종각에서 함께 평화의 종을 타종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학술 행사 '제3회 불교문화교류제 국제 학술대회'는 9일 한국불교

역사문화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윤재운 대구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8~10세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윤 교수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공간인 황해, 동해, 오후츠크해 가운데 황해는 장보고로 대표되는 신라상인과 발해 상인의 활약이 주목되고, 동해는 고구려 및 발해 관련 사절단, 오후츠크해는 숙신·음부족이 주역이었다"고 말했다.

박기범·이나은 기자

금강경 강의 수강 및 인도 오쇼명상 나다브르마 수행 안내

세계적인 명상의 스승 인도 오쇼 명상 나다브르마수행 및 불교 금강경 명상 수행 최고의 지침서 강의

불교 금강경이란 이런것이다 제자 수부티의 이질문에 대한 부처님답변이다 올바른개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이 금강경이란 경전이다 명상이란 바로 이금강경 내용을 실행 하는 것이 올바른 명상이다

금강경 제일분 법회인유분 이란 친밀한 스승부처님과 제자12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질문과 가르침이 펼쳐지는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한 상황설명이다제16분 능정업장분 전생의 업보를 소멸 시키다 선세죄업 즉위소멸 전생에서 지은 업보 즉시 소멸 된다 하지만 흑유인론 심중광란 호의불신 하리라

이금강경을 이해 하므로 전생의 업장이 소멸 되고 정등각 올바른 깨달음에 들지만 흑 유어면 사람은 여우처럼 의심하여 믿거나 이해 하지 못하고 마음이 미쳐 날뛰었다

처음이자 마지막 백일 금강경 강의 달려 오시라 망설이거나 계산 하는 마음은 빗나갔다

오시라 명상사로

강 의 자 : 명상사 주지 동암스님 . 오쇼산야신 아난드마그노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342 명상사 법당

강의수련일시 : 2011년 6월 19일 부터

매일 오후 20시~22시 2시간 100일간

선 착 순 : 약간명 숙식 가능

문의연락처 : 033)521 1772 / 010-7200-0943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